

허무 중의 허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성경: 전 1:2-11, 14, 2:17, 22, 3:11, 12:8, 시 39:4-6, 엡 4:17-21, 24, 요일 5:20, 롬 8:19-22

I. “허무 중의 허무라. 모든 것이 허무여라.” — 전 1:2하.

- A.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이 책의 주제가 허무 중의 허무라는 것을 본다.
1. 전도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서의 인간 생활이 허무 중의 허무라는 것이다 — 전 1:2.
 2. 전도서의 내용은 해 아래서의 타락한 인류의 인간 생활, 곧 부패한 세상에서의 삶을 묘사해 주는 것이다 — 엡 2:12.
 3. 전도서에서의 솔로몬의 가르침은 부패한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이 허무요 바람 잡는 것임을 보여 준다 — 전 1:14.
 4. 전도서에 따르면, 인류 역사는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허무이다 — 전 12:8.
 5. 어떤 것이 아무리 선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놀라울지라도, 그것이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인 한, 해 아래 있는 허무 중의 허무의 일부이다 — 전 1:9, 2:11, 17, 22.
 6. 오직 하늘들에 있고 ‘해 아래’(전 1:9) 있지 않은 새 창조물만이 허무가 아니고 실재이다 — 고후 5:17, 갈 6:15, 엡 4:24.
- B. 시편 39편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공허함과 허무를 깨달았다.
1.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며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가장 좋은 때에도 다 허무일 뿐임을 알게 되었다 — 시 39:5.
 2. 우리의 상태가 죄로 가득하며(시 38편) 우리의 상황이 허무할 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 시어, 우리를 통해 사시고 우리를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게 된다.
- C. 사람은 가장 높고도 고상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 창 1:26.
1.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개입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 안에 자신을 죄로 주입하였다 — 창 3:1-6, 롬 5:18, 3:23, 요일 3:4.
 2.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통치 아래 두신 모든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다(롬 8:20-21). 그러므로 부패한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 역시 허무하게 되었다.
 3. 이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구속과 생명과 부유함과 누림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취함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 전 12:13-14.
- D. 비록 부패한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이 허무요 바람 잡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두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전 3:11.
1. 전도서 3장 11절에서 ‘영원’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해 아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대대로 운행하는 신성하게 심어진 일종의 목적 있는 감각’(확대역 성경)이다.

2.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영을 지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담게 하셨으며,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만족이 되실 수 있게 하셨다 — 창 1:26, 2:7, 속 12:1.
3. 비록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사탄을 통해 죄가 들어와 사람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좌절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람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 — 전 3:11.
4. 일시적인 것들로는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목적의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 — 비교 고후 4:18.

II.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와 24절에서 바울은 더 이상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를 제시해 준다.

- A.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한다.
 1. 타락한 인류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는 헛된 생각이다.
 2. 이방인들 곧 민족들은 타락한 사람들이며, 그 생각하는 것들이 다 허망하다 — 롬 1:21.
 - a. 그들은 헛된 생각을 따라 하나님 없이 행하며, 그들의 허망한 사상을 따라 통제받고 지시받는다.
 - b.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만 헛된 것일 뿐이다.
 3.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민족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력이 어두워졌다 — 엡 4:18.
 - a.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일에 관한 그들의 이해력은 어두워진다 — 시 94:11.
 - b.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이해력은 어두워지고 생각은 허망하게 된다 — 엡 4:17-18.
- B. 에베소서 4장 17절과 21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와 타락한 인류의 생각의 공허함 사이에 대비가 있다.
 1. 타락한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생활에는 공허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경건한 생활에는 실재가 있다.
 2.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언급된 새사람의 ‘실재’이다.
 - a. ‘그 속이는 것’(엡 4:22)은 인격화되어 사탄을 가리키고, ‘그 실재’(24절)는 인격화되어 하나님을 가리킨다. 속이는 것은 바로 마귀이고, 실재는 바로 하나님이다.
 - b. 실재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활 가운데서 볼 수 있었다 — 엡 4:21.
 3.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이다.
 - a. 예수님의 인간 생활은 실재에 따른 생활, 곧 하나님 자신에 따른 생활이었다 — 엡 4:24.
 - b. 예수님의 생활의 본질은 실재였다. 그분은 항상 실재 안에서 행하셨다.
 - c. 주님께서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하셨던 모든 것은 표현되신 하나님이었고, 따라서 실재였다.
 4. 실재에 따른 예수님의 생활은 믿는 이들의 생활을 위한 본이다 — 요이 1-2, 4, 요삼 3-4.
 - a.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실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 엡 4:20-21, 요이 1, 요 4:23-24.
 - b.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실재의 생활,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C. 우리는 ‘그 참되신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안에 살 수 있다 — 요일 5:20.

1. ‘그 참되신 분’은 우리에게 주관적이 되신 하나님, 곧 객관적이시지만 우리의 생활과 체험에서 참되신 분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2. 그 참되신 분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요일 5:20.
3. 그 참되신 분은 신성한 실재이다. 그 참되신 분을 아는 것은 신성한 실재를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함으로써 이 실재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III. 창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 롬 8:19-22.

A. 사탄이 자신을 죄로 사람 안에 주입한 결과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 있게 되었고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다 — 롬 5:12, 8:20.

1. 창조물이 허무한 데 그리고 썩음의 노예 상태에 굴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 — 전 1:2, 12:8.
2. 현재 창조물은 쇠퇴하고 썩는 자연의 법칙 아래 속박받고 있다. 창조물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 롬 8:20-21.

B.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곧 완전히 집중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 롬 8:18.

1. ‘나타나는 것’은 직역하면 ‘계시되는 것’인데, 이전에 덮여 있었거나 감추어져 있던 것이 보이게 되거나 드러나는 것이다 — 엡 1:17, 3:5, 갈 1:15-16, 계 1:1.
2.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곧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될 때, 가려진 것은 고향일 것이다 — 롬 8:19.
3.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롬 8:22)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19절).
4. 이러한 나타남은 우리가 현재 통과하고 있는 인정되는 과정의 완결일 것이다 — 비교 롬 1:4 각주 6.

C. 비록 현재 창조물 전체가 허무와 썩음의 상태에 붙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현 상태를 처리하시기 위해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오실 것이다 — 계 11:15.

1. 장차 올 왕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 곧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로 주로 이루어진 왕국일 것이다 — 마 6:10, 13, 롬 8:19.
2.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왕국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 안에서 표현된다 — 마 6:10, 13하, 시 145:11-13.
3.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과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 살전 2:12.
 - a.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신성한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역이자 하나님을 누리는 영역이다 — 마 6:13하.
 - b.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시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이다 — 계 5:10, 13.
 - c. 왕국의 빛남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 마 5:16.

4.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행정을 위해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표현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가지 일로서 동시에 일어난다 — 히 2:10, 마 5:20, 살전 2:12, 살후 1:10, 계 21:9-11, 22:1, 5.
5. 창조물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 왕국이 나타날 때에 창조물 전체는 해방될 것이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허무한 데서 구출될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 마 13:43.